

제165호

발행일 : 서기 2024년 11월 28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mgu@naver.com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온 2024년의 한해도 저물어 가는 12월입니다. 해마다 이맘 때쯤이면 세월의 빠름을 새삼 또 실감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셸러는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는 것”이라고 시간의 흐름을 정의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시간은 쌓이고 아쉬움은 그만큼 커져만 갑니다.

돌이켜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종친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대종회를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9일(음 10.9) 안동 충렬공 중시조 고·비위 세일사에도 경향 각지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여 격려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안동종친회와 부녀회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수와 신평양조장 용세 고문께서 보내주신 맑은 제주를 조상님께 올렸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이러한 숭조 의식이 안동 김씨 가문을 명문가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종회 연중행사 중 가장 큰 행사는 안동 충렬공 중시조 세일사를 봉행하는 일입니다. 올해는 중부 대표로 대종회 영화(榮和) 부회장의 부인이신 전임순(田任順) 여사를 종현관으로 헌작

하여 우리 안동김문의 여성 헌관 전통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렬공께서 주벽으로 모셨던 물계서원 복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안동·예천 지역구 김형동 국회의원은 지난해 헌관으로 참제하였고, 올해는 일반 참사자로 참석하여 서원 복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올해 물계서원 복원 진행은 예천군에서 예산을 세워 타당성 조사와 평가회를 마치고 중앙정부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옛 물계서원 터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종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후손들의 뿌리 교육을 위한 만화책 “안동김씨순례기” 전 3권 중 1권은 이미 배포했고, 이어서 내년 상반기 완성을 목표로 2권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곡리 상고산에 고산정을 복원하는 일과 영호루에 선조님 시판 2개를 계판하는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조님의 유적을 발굴 복원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후손 된 도리로 선조님 현양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라며 더욱더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萬事亨通)’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석한

회비를 납부해 주신 임원·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08.26. ~ 2024.11.25.)

- ◎ 부회장회비 3십만원
(부)원호(광명), (대)태권(광주), (제)용식(의정부)
(按)형남(강남), 태윤(세종), (익)재택(논산), (판)영환(강남)
- ◎ 이사회비 2십만원
(개)웅선(인천), (군)형묵(청주), 승남(서초), 장묵(부천)
(부)창호(구로), 영식(춘식)(대구), (문)광묵(강서), 경희(용인)
(대)태종(광주), (제)재삼(천안), 석응(천안), 태권(충주), 평응(천안)
(按)용국(남양주), 용주(용인), 용원(세종), 범식(강남)
(익)용관(고창), 권희(수원), 태신(중구), 장희(강릉), 재화(화성)
- ◎ 통상회비 1십만원 (?)재정(?)
- ◎ 통상회비 7만원 (제)용회(인천)
- ◎ 통상회비 5만원
(군)지묵(강서), (도)우수(안양), (익)남희(강릉), 양묵(춘천)
- ◎ 통상회비 3만원
(按)정희(대전), 영희(청주)-3만3천원

(익)원선(영주), 기범(동대문), 민우(당진), 철희(인천)

- ◎ 평생회비 3십만원 (군)석희(동작)
- ◎ 찬조금 2십만원 (군)우용(김포)
- ◎ 찬조금 1십만원 (문)정호(한회)(전주)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종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회비(부회장) - 3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2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3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3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제한없음 	<p>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종회</p>

※정정 : 대종회보 제163호 회비 명단 (正)경량 찬조금 300,000원을 평생회비로 정정합니다.

2024년도, 대종회비 납부협조 요청

대종회 운영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으로 찬조금을 협찬하여 주시는 종친여러분, 그리고 대종회비를 납부하여 주신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친여러분의 성금과 회비는 대종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여 대종회 회비를 깜박 잊으시고 아직 납부하지 못한 임원 종친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예 금 주 : 안동김씨대종회

安東金氏大宗會事務處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02)2244-3717 fax 02) 2243-1073

갑진년, 상락 충렬공 고비위 세일사 봉행



▲제향을 마치고 기념 촬영



▲독후감 표창장 및 부상 수여 장면(좌: 김형동의원, 중:세은양의 조부 영희, 우:석한 대중회 회장)

2024년 11월 9일(음 10월 9일) 토요일 경북 안동시 녹전면 능동 충렬공(휘 方慶) 중시조 묘소와 풍산 회곡의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 단소에서 안동김씨 대중회 석한(錫漢) 회장을 비롯하여 이 지역의 김형동 국회의원 등, 전국 경향 각지에서 400여 종친들이 참석, 제단을 짝 매운 가운데 안동김씨역사연구회 윤만(潤萬) 회장이 진행하는 홀기(笏記)에 맞춰 문영공종회 태헌(泰憲) 회장의 초헌례, 대중회 성회(聖會) 부회장의 아헌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 헌관에 대중회 영화(榮和) 부회장의 부인이신 전임순(田任順) 여사를 중부대표로 종헌례를 받들어 여성 헌관의 전통을 이으면서 충렬공 724주기 세일사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관광버스 7대를 운용하여 함평·보성 종친회, 전주(봉동)종친회, 논산·부여 종친회, 천안·청주·괴산 종친회, 수원·화성종친회, 사당동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종친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단풍철과 주말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30분이 지체되었지만 이른 새벽을 깨워 달려온 후손들은 승조의 마음이 크고 높기만 했다. 한편 시제 봉행에 앞서 대중회에서 간행 배포한 《안동김씨순례기》제1권 뿌리를 찾아서를 읽고 독후감을 보내준 익원공과 김세은(金洗澗, 강화여중 3학년) 학생에게 표창장과 부상으로 6십만원 상당 태블릿PC 1대를 손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 김영희씨를 통해 시상하였다.

석한 대중회장은 해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세일사에 참석해주신 안동김씨 종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물계서원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남기신 유업을 잘 계승해 가자고 하면서 충렬공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고 하셨다. 또한 김형동 국회의원도 인사말을 통해서 물계서원을 복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영만 고문



▲초헌관 태헌(문영공종회 회장)



▲아헌관 성회(대중회 부회장)



▲종헌관 전임순 여사(중부대표)

께서는 직일평을 통해 올해에도 정갈하고 훌륭하게 향사준비를 해준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 하시면서 89세까지 장수하신 충렬공의 후예답게 모두 건강하시라는 덕담을 끝으로 기념촬영을 마치고 하산하였다.

능동 음수재(飮水齋) 광장에 차려진 식탁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풍산읍 회곡리로 이동하여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님 세일사를 모셨다. 안렴사공파 형남(亨南) 회장의 초헌례와 개성윤공파 이경(履暲) 회장이 아헌례를 정의공파 수선(洙銑)회장이 종헌례를 봉행하였다.

매년 반복하는 일이지만, 올해에도 제수 준비는 안동종친회와 안동부녀회에서 수고해 주셨고, 당진 신평양조장에서는 능동과 회곡 양쪽으로 최고급 제주(祭酒, 백련 맑은 술)를 보내주셨다.

마지막으로 귀갓길에 대종회장께서 준비한 울담요(퀸사이즈) 1개씩과 아울러 익원공파종회에서 기념타올을 참석 종친 모두에게 선물로 증정하면서 모든 세일사를 마쳤다. 이날 분정은 다음과 같다.

直日	時到	奠爵	奉爵	司樽	奉爐	奉香	贊引	陳設	大祝	執禮	山神	終獻官	亞獻官	初獻官	회곡 냉평국대부인 단소	終獻官	亞獻官	初獻官	능동 충렬공 묘소동	二〇二四年 安東時祭 分榜記
영만榮萬	태영泰榮	용국容國	재삼在三	광회光會	태연泰連	장묵張默	태신泰信	재교在教	신묵臣默	윤만潤萬	덕응德應	수선洙銑	이경履暲	형남亨南	회곡 냉평국대부인 단소	전임순	성회聖會	태헌泰憲		
(按)대종회고문	(郡)대종회사무총장	(按)대종회이사	(提)대종회이사	(翼)안동사무국장	(按)대종회이사	(郡)대종회이사	(翼)대종회이사	(翼)안동종친회장	(文)학술위원장	(文)파종회장	(提)대종회부회장	(正)파종회장	(開)파종회장	(按)파종회장	회곡 냉평국대부인 단소	(翼)대구宗婦代表	(翼)대종회부회장	(提)문영공종회장		

2024년도 안동 시제 향축대 (₩21,600,000)

2백만원	【익원】· 석한 - 대종회 회장	2,000,000
1백만원 3명	【제학】· 태헌 - 문영공종회 회장 【안렴】· 형남 - 파종회 회장 【익원】· 전임순 - 종부대표 헌관(영화 부회장 부인)	3,000,000
5십만원 6명	【문온】· 영환 - 판서공종회 회장 【안렴】· 영주 - 사석종중회장 · 재철 - 장관종중회장 · 재필 - 일송정회장 【문영】· 문영공종회 【서운】· 파종회	3,000,000
3십만원 7명	【판서】· 판서공종회 【군사】· 준회 - 파종회장 · 칠정문중 · 양천종중 【제학】· 백전종중 【안렴】· 태운 - 수도권회장 【익원】· 성회-부여(대종회 부회장)	2,100,000
2십만원 27명	【개성】· 이경-파종회장 【대호】· 파종회 【군사】· 파종회 · 장안종중 · 태영-사무총장 · 성묵 - 인천종친회장 【부사】· 원호 - 파종회장 【문온】· 파종회 · 용회 - 도사공종회장 【안정】· 흥기 - 파종회장 【도평】· 파종회 · 원중-파종회장 【제학】· 파종회 · 남응-대종회고문 · 규원-파종회장 · 생원공(수진)종중 【안렴】· 파종회 · 판교공종회 · 신창공종회 【익원】· 파종회 · 효소공종회 · 수원참의공종회 · 대식-안동부회장 · 재남-대종회고문 【정의】· 파종회 【본연】· 본연회(안동회원일동) 【화·수】· 화성 · 수원종친회	5,400,000
1십만원 60명	【군사】· 광탄종중 · 석봉종중 · 승남 · 재구 · 발용 · 인숙 · 일수 · 정회 【문온】· 영운 · 재만 · 신묵 · 상식 · 수길-대구종회장 【도평】· 희운-고문 【대호】· 태권-파종회장 · 태종 · 회성 · 태식-고문 · 재구 【제학】· 덕응-부회장 · 한용-청주종친회장 · 윤철 · 재삼 · 태시 · 평응 · 윤식 · 탁응 · 태건 · 법혜-고문 · 명식 · 만응 · 태왕 · 수도권종회 【안렴】· 용국 · 용주 · 태용 · 선화-고문 · 태영 · 용주 · 범식 · 영만-고문 【익원】· 재영-고문 · 정묵-고문 · 수현-故화자고문 女 · 태용-부회장 · 영화 -부회장 · 강식-부회장 · 재택-부회장 · 태연 · 태철 · 태신 · 지묵 · 종빈 · 형식 · 구회 · 전첨공종회 · 나주종중 · 논산종친회 · 장령공부여종중 【정의】· 수선-파종회장	6,000,000
5만원	【제학】· 용식 - 수도권회장 【익원】· 진섭 - 대구	100,000
물품찬조	· 석한 - 대종회장 500만원 상당 울담요 · 안동종친회, 부녀회 - 충렬공 제수 차림 · 용세 - 대종회 고문(당진신평양조장) 제주 (능동, 회곡) · 익원공파종회 - 기념타올 증정	
54명	합계	21,600,000

《만화 독후감》

“안동김씨 순례기” <1권 뿌리를 찾아서>를 읽고!



강화여자중학교 3학년 김세은(金洗暭)
익원공파 (안산 이목종친회)

[세은 학생 가계도]

중시조 방경-순-영후-천-익원공 파조 사형-
승-종숙-질-성동-언-백령-료-이경-희-
우급-도-귀철-순재-시영-동려-광록-우규-
인묵-재찬-영화-수길-세은(洗暭)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은 역사가 꽤 깊다. 하지만,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지에서는 크게 필요하지도 와닿지도 않는 질문이다.

그렇지만 몇만 년 전의 먼 조상은 몰라도, 불과 몇천 년 전 또는 몇백 년 전에 이 한반도라는 같은 땅에 살았던 조상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씨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김씨 성이지만 성씨에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와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알려준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인구 중의 20%가 김씨 성을 사용한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성씨가 뭐세요? 한다면 확률상 5명 중 1명은 김씨인 것이다.

우리 학교 학급만 하더라도 한 반에 김씨 성을 가진 친구들이 적어도 6명 이상이다. 하지만, 김씨 성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먼저, 김씨 성은 신라 건국 설화에 등장하는 김알지 계통의 신라계와 가야의 김수로왕을 비조로 하는 가락계가 있다. 신라계 김씨 선조님 중 숙승 등과 같이 많은 인물이 계시지만, 그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인물이 있다면 나의 안동김씨 중시조이신 충렬공 할아버지이다. (중시조란, 조상 중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이나 업적이 뛰어난 인물이다.)

“충렬공의 본명은 김방경이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은 인물이셨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잉태하였을 때, 신선 세계에서 구름과 노을을 먹는 꿈을 꾸었다고 하며, 어린 시절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 있던 그를 소와 말이 피해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16세 때 음서로 벼슬길에 올랐고, 감찰어사를 지냈다. 또한 그는 매우 우직하고 성실한 성품의 소유자로, 재상의 청탁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몸이 아파도 휴가를 청하지 않으며 주색을 탐하는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위엄과 절조를 지켰다.

이에 그는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승진하였다. 중간에 무고로 체포도 되었지만, 곧 풀려난 뒤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는 원나라 황제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고, 왕에게도 은 10근을 받으며 충실히 관직 생활을 하다가, 충렬왕 9년 퇴직하여 말년을 보냈다.”

지금까지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나는 충렬공 김방경 할아버지의 많은 일화와 업적 중, 주변 동료들이 방탕하게 지내도 자신은 끝까지 위엄과 절조를 지킨 것, 자신에게 많은 재물과 권력이 있음에도 이를 사사로이 악용하지 않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왜냐하면, 가끔 주변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헛갈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충렬공 김방경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이다.

관직 생활 중 많은 모함과 무고가 있었지만, 끝까지 관직 생활을 하신 것에서도, 그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몰랐던 우리 안동김씨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비록 이것이, 어디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나의 정체성인 성씨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안다는 것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책이기도 하지만,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해 준 고마운 책이다.

2024년 8월 25일

2024년도 제례(祭禮)위원회 개최



제례위원회는 10월 10일(목) 오후 3시 휘경동 대종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안동 능동·회곡 상락 충렬공(휘 방경)·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세일사에서 사용해 오던 홀기(笏記)를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윤만 위원장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홀기를 저본(底本)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홀기 개정 내용]

1. 청행사(請行事)를 신설.
2. 분향례(焚香禮) 강신례(降神禮)를 분향강신례(焚香降神禮)로 일원화 시킴.
3. 실묘와 단소 구분없이 분향강신례(焚香降神禮)-참신례(參神禮) 순으로 순서를 바꾸고자 하였으나 좀 더 자문을 받아 결정하기로 하여 유보함.
4. 유식례(侑食禮)에 첨작(添酌) 넣기로 함.
5. 고예성(告禮成)을 고예필(告禮畢)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함.

이 수정안 홀기는 재영 고문님, 영환 판서공중회장님의 자문을 받고 석한 대종회장님의 재가를 얻어 표준안을 확정된 다음 내년 2025년 세일사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시제를 위한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회의를 마쳤다.

참석한 제례위원은 윤만 위원장을 비롯 태철(익), 태신(익), 봉진(안), 신묵(문), 건(문), 발용(군), 형식(익), 천만(문) 위원과 태영 사무총장 등 10명.

숭의전 추계대제 분헌관 태운(泰允, 按) 부회장



고려 기원 1107년 숭의전 추계대제(秋季大祭)가 2024년 10월 6일(일) 오전 11시, 연천군 미산면 숭의전(崇義殿)에서 개성왕씨 종친회 주관으로 그 후손과, 고려공신 후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숭의전(崇義殿)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을 비롯하여 나라를 부흥시킨 현종, 문종, 원종 등 왕위패를 모시고 있고, 배신청에는 복지겸, 홍유, 신승겸, 유금필, 배현경,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김취려, 조충,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정몽주 등 16분 공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배신청에서 봉향된 첨의령 충렬공(휘 방경) 분헌관에 김태운(金

泰允, 按) 안동김씨대종회 부회장이 현작을 하였다. 이번 제향에는 제학공파수도권 윤철 사무국장, 안렴사공파에서는 태성 부회장, 인식 수도권 사무국장, 관묵, 태운, 재기, 사관, 범식부부, 멀리 세종사에서 용원 사손, 국회, 재판, 그리고 용국 사무국장 등이 참례하였다. 제례를 마치고 함께 점심식사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일정을 마쳤다.



본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는 '본관사수'



9월 21일(토) 12시부터 서울 방화동 M스튜디오에서 SK브로드밴드 B-TV '본관사수' 프로그램에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 회장, 김영환 총령공김방경기념사업회장, 김진아 며느님이 출연하여 안동김씨를 소개하는 토크쇼를 촬영했다.

'본관사수' 는 개그맨 김용만, 박성광이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성씨 토크쇼로 나는 누구인가?

김용만씨 당신이 우리 가문이라구요? 예. 문정공파입니다.



아~ 익원공파 문정공 후손이군... 예? 아버지로부터 문정공파라고 들었는데요.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유명 역사인물 소개 등 알수록 신기한 안동김씨의 역사와 세계가 유모어와 재치로 재미있게 펼쳐졌다. 본관사수는 국내 유명 성씨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안동김씨는 10월 18일(금) 오후 7시30분 각 성씨중 4번째로 방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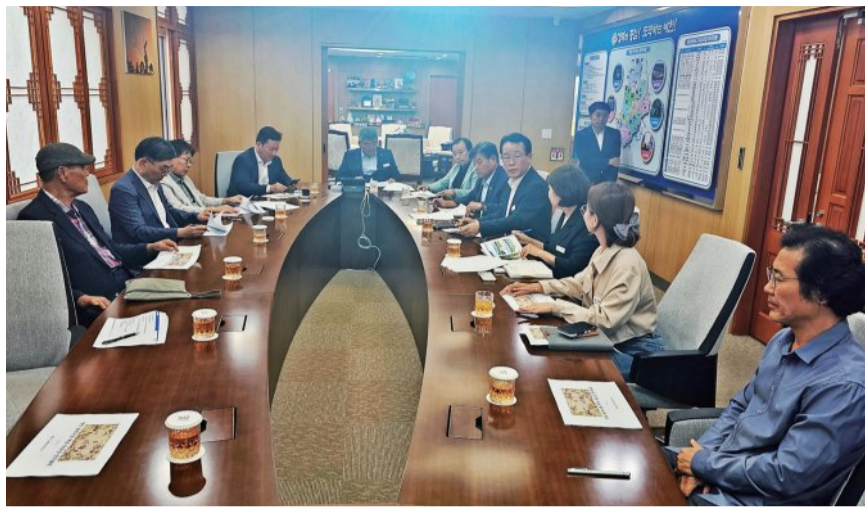
대종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종회에서는 대종회보(종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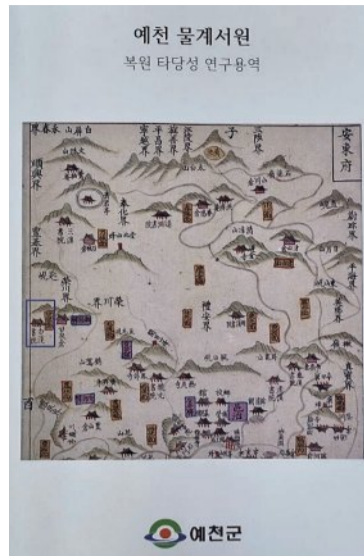
-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 제출처 : 대종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 연락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물계서원 복원 타당성 조사 평가회



경북 예천군은 9월 27일(금) 오후 4시 군청 상황실에서 물계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입지 조사 용역을 마치고 평가회를 개최하여 학술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이날 평가회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환 회장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예천군에서 박상현 문화관광과장, 팀장 등 관계자와 물계서원 복원추진위원장 조운(예천문화원장), 부위원장 김홍년(예천군의회 의원), 위원 김재영(대종회 고문), 위원



김윤만(안사연 회장), 위원 김태영(대종회 사무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을 맡은 계정문화연구소 김찬영 소장은 '예천 물계서원 복원 타당성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배포하고, 연구개요, 연혁 및 복원 타당성 검토, 복원 기본구상, 복원 기본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복원 사업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나눴다.

예천군은 다음 단계로 발굴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발굴조사가 끝나는 대로 문경의 근암서원(조감도 참조)을 롤모델로 '물계서원 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중앙에 예산을 신청하여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의 문화유산 물계서원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른 지역 복원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가 및 지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의 문화유산 물계서원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른 지역 복원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가 및 지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온공파 포천 금수단(金水壇) 9위 세향 봉행



문온공파총회는 2024년 10월 20일(일요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8번지 금수단에서 정기총회 및 세향을 봉행하고, 오후에는 문온공 아드님이신 성천도호부사공[휘 명리(明理)] 세향이 가양리 선영에서 있었다. 이날 영·호남을 비롯한 경향 각지에서 40여 종인이 참례하였는데 특히 전북 완주 봉동의 참의공 종중에서 대거 참례하여 모처럼 세향이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금수단은 상락총렬공[휘 방경(方慶)]의 손자이신 양간공[휘 승택(金承澤)], 배 낙랑국대부인 경주김씨이하 상락군[휘 묘(昴)], 배 삼한국부인 여흥민씨, 문온공[척약재(楊若齋) 휘 구용(九容)], 초배 해평군부인 해평윤씨, 계배 당성군부인 남양홍씨 7위의 단소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문온공[척약재 휘 구용]의 외조부모이신 문온공[급암(及庵) 민사평(閔思平)] 선생과 배 언양군부인 언양김씨의 세향도 650여

년 동안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외손봉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온공(척약재 휘 구용)께서 왕사(王事)로 명나라에 가셨다가 쓰촨성 루저우 용녕현 장면잔에서 순국하신지 640주년, 부사공(휘 명리)께서 돌아가신지 586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랜 세월 우리 문온공 후손들은 보물 제1004호로 지정되어 있는 『척약재학음집』 국역본을 발간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가 10여년 전부터 후손들의 정성을 모아 드디어 금년에 『역주 척약재학음집』을 간행하여 지난 4월 26일 필동 한국의 집에서 성대한 출판기념식을 갖는 기쁨을 누린 한 해였다.

또한 척약재계서는 남원 용장서원과 예천 물계서원 두 곳에 배향되어 계셨는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모두 훼철되었다가 용장서원은 1960년대 가까스로 복원되어 해마다 (음) 3월 17일 제향일에 맞춰 참사단을 파견하여 제향에 참례하고 있다. 부지 확보, 학술대회, 타당성 조사 및 보고까지 원만하게 진척되고 있는 물계서원도 조속히 복원되어 주벽이신 상락총렬공과 문온공 두 분 할아버님께 제향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손꼽아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족보 업데이트 과정에서 그동안 족보에서 떨어져 있던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문온공의 셋째 아드님 명윤(明允)계 후손들이 족보 등재는 물론 금년부터 금수단 세향에도 참례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그동안 떨어져 있던 종사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문온공파총회장 桑村 潤萬 -

금수단 및 가양리 세향 분정

구분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대축	집례	찬인	좌집사	우집사	산신제
금수단	회장 윤만	부회장 경희	부회장 영기	감사 신묵	사업 영윤	재무 왕용	이사 명목 음성 태성	총무 건 별제 상만	고문 수길
가양리	부회장 계만	봉동 용희	이사 현묵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물계서원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 11. 22 기준)

3천만원	【翼】· 석한-대중회장	30,000,000
2억원	【翼】· 수원 판결사공중중	200,000,000
1천만원(6명)	【文英】· 문영공중회 【都】· 봉회-명예회장 【文】· 파중회 【按】· 형남-파중회장 【翼】· 파중회 · 수원 참의공중중	60,000,000
7백5십만원	【書】· 파중회	7,500,000
5백만원 (11명)	【郡】· 준회-파중회장 · 파중회 · 광탄중중 · 칠정문중 【부울경】· 부산.울산.경남종친회 【文】· 영환-총렬공기념사업회장 · 참의공중중-완주 【按】· 파중회 【翼】· 목사공중중 · 부령공중회 · 효소공중중	55,000,000
3백만원 (6명)	【郡】· 평택자산공중중 【文】· 경기광주문중 【都】· 파중회 【提】· 파중회(생원공) 【翼】· 효헌공중중 · 실경-대구종친회 고문	18,000,000
2백만원 (9명)	【郡】· 장안중중 【文】· 포천별제공중중 【安】· 파중회 【按】· 소윤공(지주사공)중회 【安東】· 안동종친회 【翼】· 재용 고문 · 재남 고문 · 문정공중회 · 정묵-전대구회장	18,000,000
1백3십만원	【郡】· 재근-부안	1,300,000
1백1십만원	【文】· 재만-대구	1,100,000
1백만원 (42명)	【郡】· 성묵-인천 · 재이-강진 · 중회-부산 · 태영-사무총장 【典】· 처사공중회 · 재윤-전파중회장 【副】· 원호-파중회장 【文】· 윤만-파중회장 · 왕용-포천 · 용구-광진 · 영옥-광주 · 음성공중회 【都】· 향회-대구화랑 · 수도권중회 【大】· 파중회-보성 【提】· 태헌-문영공회장 · 수도권중회 · 규원-파중회장 · 일응-주에스토니아대사 【按】· 영만-진천 · 철회-안양 · 선회-전파중회장 · 태윤-대중회부회장 【翼】· 윤묵-효소공회장 · 영수-파중회장 · 태신-중구 · 재택-논산 · 재영 · 태철-수원 · 강릉중회 · 수돈(영흥사) · 영화 · 화자 · 옥늬-대구 · 성회-부여 · 강식-하남 · 수원봉직량공중회 · 관식-인천 · 진식-영주 【正】· 파중회 · 수선-파중회장 【大邱】· 대구종친회	42,000,000
7십만원	【文】· 수길-대구종친회장	700,000
6십만원	【文】· 호길-대구종친회 고문	600,000
5십만원 (36명)	【郡】· 양천중중회【副】· 영식(춘식)-대구 【文】· 동철-이천 · 재극 · 재관-음성 【都】· 정-수도권회장 · 원중-법무사 【大】· 태권-파중회장 【提】· 용식-의정부 【按】· 서령공중회-증평 【翼】· 주식-영주 · 진섭-대구 · 진수-동대문 · 태연-인천 · 수인-고창 · 형식-안산이목종친회 · 관찰사공중중-동두천 · 인회-강릉 【書】· 각영-파중회장 · 덕영-강동 · 규상-시흥 · 주일-안양 · 상호-강남 · 세영-일산 · 규삼 · 주현-廣州 · 무영-송파 · 규석-중랑 · 정수-안양 · 관영-양평 · 석영-성남 · 수영-용산 · 주형-서초 【正】· 태형(성립)-춘천 【골프】· 안동골프회 · 인천종친회	18,000,000
3십만원 (30명)	【郡】· 희동 · 성대-정읍(형제) 【典】· 헌덕-대중회 감사 【副】· 규훈-철원 【文】· 영운-廣州 · 재원-포항 【都】· 회수-중랑 · 희운-대구 · 창화-의성 【提】· 재삼 · 석응 · 태완-천안 【按】· 사부-청주 · 태성-김포 · 용원-세종 【翼】· 동화-석한회장 · 광일-안동 동수 · 원회-논산 재택 · 근식-동대문 · 경식-이천 · 태용-용인 · 선회-당진 · 나주종친회 · 순회-영주 · 성우 · 재준 · 재석 · 재돈-대구 · 재환-보은 · 유묵-강릉	9,000,000
2십만원 (25명)	【郡】· 발용-하남 【文】· 태경-구로 윤만 · 천만-廣州 · 증평도사공중중 · 주회 · 명회-포항 재원 · 신묵-남양주 【都】· 옥수-파중회장 · 시걸-부산 · 정수-동대문 · 태성 · 재선-사촌 · 영복-의성 【提】· 덕응-공주 · 태영-수원 · 정환-제주 【翼】· 하경-석한회장 女 · 호묵-대구 영화 · 재진-당진 · 준식-수원 태철 · 종빈-의정부 영수회장 子 · 재천-홍천 · 재교-안동회장 · 종묵-대구문경공회장 · 우회-논산 재택 子	5,000,000
1십5만원	【翼】· 진현-안동	150,000
1십만원 (58명)	【郡】· 대용-용인 · 만회-파주 · 필구(범직)-홍성 · 준용-인천 · 봉회-안양 【文】· 재성-음성 · 태식-도봉 · 동호-양주 윤식 父 · 윤식-양주 · 태길-안산 · 윤희 · 윤정 · 윤미-대구 재만 子女 · 재덕(순오)-음성 · 정호(한회)-전주 【都】· 재수 · 원회-의성【大】· 재남-나주 · 태종-광주 · 성무-보성 【典】· 진화-대구【提】· 윤철-성북 · 대응-천안 【按】· 봉진-성남 · 용국-여주 · 용주-용인 · 용화-인천 · 태용-여주 · 범식-서울 · 경민-대구 【翼】· 태진 · 태경 · 진경-석한회장 孫 · 보회-수원 재영 子 · 선회-강화 · 루아-영화 부회장 孫녀 · 철회(예천) · 기범-동대문 · 홍교 · 시교-대구 · 선교-수원 · 동수 · 지원 · 태은-논산 재택 孫 · 상회 · 철우 · 재옥 · 재정 · 재춘 · 재진 · 재규-대구 · 기수-화성 · 만천-원주 · 용관 · 대현 · 세훈-고창 【正】· 수진-남양주 · 경랑-김포	5,800,000
5만원(4명)	【文】· 동묵-음성【提】· 재응-광진 【翼】· 정화-대구 · 재성-무주	200,000
3만원(3명)	【按】· 태길-은평 · 영화-청주 【翼】· 재남-대구	90,000
합계		472,440,000

<p>성금 모금 계좌안내 물계서원 복원에 따른 성금 모금에 다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p>	<p>성금 모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56201-04-238325 안동김씨대중회 ※ 반드시 소속(파)과 이름을 적어서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2024年 갑진년 문영공종회 세일사 봉향



2024년 11월 7일(음력 10월7일) 오전 11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잔디로 잘 가꾸어진 넓은 선영(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문영공종회 태헌(泰憲) 회장을 비롯한 대종회 석한(錫漢) 회장, 판서공 영환(榮煥) 회장, 초헌관을 맡으신 재용(在瑢) 고문 등 20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철(泰喆) 집례의 진행으로 문영공 할아버님과 배위 양천허씨 할머니의 세일사를 경건하고 엄숙히 봉행하였다.

초헌관	翼	재용(在瑢) 고문	사준	提	재삼(在三) 국장
아헌관	提	용식(龍植) 수도권종회장	봉로	翼	태연(泰連) 국장
중헌관	按	태윤(泰允) 수도권종회장	봉향	按	용주(容周)
대축	提	덕응(德應) 부회장	봉작	翼	형식(亨植) 이사
집례	翼	태철(泰喆) 이사	전작	翼	은회(恩會)
찬인	翼	태신(泰信) 이사	시도	提	석응(石應) 이사
진설	按	태선(泰善) 부회장	직일	按	영만(榮萬) 고문



제향을 마치고 문영공 태헌 회장은 인사말에서 화창한 가을하늘이 펼쳐진 날씨에 많은 종원분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며 문영공 후손으로 자랑스럽게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인사를 하고,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석한 대종회장은 화창한 날씨 속에 봉행 된 문영공 세일

사에 많은 후손이 참석하셔서 감사하며 문영공종회가 대종회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현재 진행되는 물계서원의 복설 계획이 종원분들의 열의와 관계 기관의 많은 협조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인사말로 하셨습니다.

또한 충무공 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법혜(法慧) 스님은 문영공 할아버님께서 필적을 남기신 동화사의 흥진국준비의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하였다. 또한 문영공의 형님인 판서공 (諱 愼) 종회의 영환(榮煥) 회장은 온화한 날씨 속에 봉행 된 문영공 할아버님의 세일사에 참례하게 되어 기쁘며 문영공 할아버님의 증손자인 익원공(晷士衡) 할아버님이 남기신 아프리카가 처음 그려진 세계지도 '1402년 강리도(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대한민국 본 제작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는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경모재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마친 후, 종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고, 임시로 문영공 발전위원회를 임시로 개최하여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영공 할아버님은 1258년(고종 45년) 충렬공(諱 方慶)의 셋째 아들이셔서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지내시고 1321년(충숙왕 8년) 64세를 일기로 서세(逝世) 하셨습니다. 문영(文英)의 시호를 받으셨습니다. 제평군부인 양천허씨와의 사이에서 4남 3녀를 두시니, 문숙공 영돈(文肅公 永暎), 상서공 영휘(尙書公 永暉), 자은사 사순(慈恩師 思順), 정간공 영후(貞簡公 永煦)이다. 첫째 따님은 청주정씨(淸州鄭氏) 정책(鄭愼)이요, 둘째 따님은 남포백씨(藍浦白氏) 백이정(白頤正), 셋째 따님은 별리기불화(別里哥不花)로 원의 좌승상 아忽반(阿忽反)의 아들과 혼인하였다.

- 문영공종회 총무이사 태철 -

(주) 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충렬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철원 포충사 추계 제향



2024년 9월 20일(음력 8.18. 丁亥) 11:00 철원 포충사(원장 전현일)에서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 장군 추계 제향을 봉행하였다. 초헌관 박경

우(철원군 부군수), 아헌관 정만식(철원향교 전교), 종헌관 김태형(안동김씨대중회 이사), 묘사 김동관, 집례 이주섭, 대축 신혜정, 알자 최창배, 봉향 안송희, 봉로 김영수, 봉작 박은숙, 전작 전영희, 사준 오미현(철원향교 장의), 안동김씨 후손 등 여러분이 참례하였다.

이날 처음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선정한 여성 대축(大祝)이 축문을 독축하면서 이목을 끌었으며, 제향을 마친 후 포충사에 공로가 많은 철원군청 문화유산팀장 김은주씨와 김태룡 김응하 역사연구회(회장 김규훈) 사무국장에게는 안동김씨대중회 김석한 회장의 표창장과 철원 포충사 전현일 원장이 상금과 꽃다발을 수여하였다.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폭우가 계속 내려 비가림 천막을 치고 분주했으나 제관들의 염원이 장군님께 닿았는지 10:50경부터 비가 그쳐 추계 제향을 잘 마무리하였다.

- (副)김태형 대중회 이사 -

제22회 김충무공 대상에 육군 6사단 권혁상 중령 선정



강원 철원군은 제22회 김충무공 대상에 육군 6사단 용호대대장 권혁상 중령을 선정하고 10월 3일 개최한 제42회 태봉제 철원군민상 시상식에서 수여했다.

김충무공 대상은 조선시대 명장인 철원 출신 충무공 김응하(金應河)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자 철원군이 2001년 제정한 상으로 철원에서 복무하는 현역 대대장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매년 수여하여 22회를 맞이했다.

권 중령은 2022년 10월 6사단에서 대대장 보직을 맡아 남다른 국토방위 열정과 군인정신으로 부대를 지휘해 왔다. 특히 군민과 함께하는 육군을 만들고자 영농철 대민 지원, 드론 방제 등을 적극 돕고 민통선 초소 담당 부대로서 빠르고 친절한 출입 안내, 지역축제 적극 참여 등 민·관·군 상생에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응하(金應河) 1580년(선조 13년) ~ 1619년(광해군 11년)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자는 경희(景羲),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경원 판관(慶源判官), 삼수 군수(三水郡守), 선천부사(宣川府使)로 있으면서 국경 지대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1618년(광해군 10)에 건주위(建州衛)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명나라는 조선에 군사를 청하였다. 1619년 김응하는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의 좌영장으로 3천명을 거느리고 심하전장(深河戰場)에서 적의 군사 6만과 대치하며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갑자기 태풍이 일어 모래 속에 싸이게 되자 군사들이 흩어졌다. 그는 홀로 버드나무에 의지하여 적병 수십 명을 죽이고 중과부적으로 전사했다. 후금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한 후 버드나무 아래서 죽었다 하여 유하장군(柳下將軍)이란 뜻을 세우고 버드나무 이름을 장군류(將軍柳)라고 했다. 1620년(광해군 12) 명나라 황제가 요동백(遼東伯)을 봉하고 가족에게 은(銀)을 내려주었으며 조정에서도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사)충무공 시민장군기념사업회, 김시민장군 탄신470주년 문화축제 성료



▲ 수상자 전체 기념촬영 모습.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제공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법해, 이하 충민사업회)는 지난 19일 김시민 장군 탄신 470주년 기념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문화축제는 내빈 및 수상자를 포함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김법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김시민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는 것은 탄신의 의미를 넘어 그 분의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세 글자에 담겨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번째가 바로 현실에 대한 각성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통일 독트린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동참하자”고 역설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천안이 낳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여 열리는 자유 통일과 애

다음 페이지 계속

민·애국 정신이 함께하는 축제”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은 “김시민 장군 탄신 470주년 문화축제는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축하공연을 열어준 이지수, 김다은씨의 ‘바람의 노래’는 관람객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다.

김오현 총감독이 이끄는 (사)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의 ‘충무공 김시민전’은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 축하공연은 초등학교로 구성된 비룡시범단(대한검도 두정검도관, 소속 관장 이성훈)의 본국검법, 진검베기 시연으로 관객들

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매년 (사)충민사업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호국충절선양 봉사상’은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수상했고, 충남도지사 표창에는 이상현(충민사업회 기획실장)씨가 수상했다.

부문별 수상자로 제8회 전국통일문예 부문 전체 대상은 시인 강명숙 님의 ‘새들은 회상으로 날고’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통일부장관상은 문예부분 대상자인 강은아 씨가, 통일부장관배 전국검도대회 종합우승자인 백진수 관장이, 고등부 우승자인 서지훈 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프간 ‘미라클작전’의 영웅 김일웅, 주에스토니아 대사에 임명

물계서원 성금으로 1,000,000원 쾌척.

아프가니스탄 ‘미라클(기적)’ 작전의 영웅, 김일웅(金日應, 1969생) 외교관이 2024년 8월 20일 에스토니아와 수교 후 첫 번째 주에스토니아 대사로 임명되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수여를 받았다.

김 대사는 제학공과 사간공(휘 顧)의 차남 중렴(仲廉)의 후손으로 아버지 상원(相元)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용인에서 태어났다. 김 대사는 안양고등학교를 나와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하고 외교고시(제33회)에 합격했다.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외무부에 들어가 프랑스, 아프간 지방재건팀, 뉴욕 주유엔대표부, 이라크, 벨기에 등에서 근무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공사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일웅 외교관은 아프간 주둔 NATO 및 미군 철수가 진행됨에 따라 치안이 악화하고 탈레반 치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390명을 구출하는 ‘미라클작전’을 성공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 정부에서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했고, 2022년에 주인도 공사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김 대사는 한국외국어대 총동문회(회장 양인집)에서 주는 ‘2022년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을 수상하면서 “일을 진행하며 ‘된다, 안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질 않았다. 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구나’, ‘미국·영국·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하는 것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 국격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대사는 에스토니아 임지로 떠날 때, 제학공과 수도권총회를 통해서 1백만 원을 대중회로 보내왔는데, 물계서원 복원을 응원하는 마

음이라고 하면서 적게 보낸 것을 미안해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안동김씨대중회보 제153호 16면 참고]

한국의 ‘미라클 작전’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와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군은 미군과 그들의 동맹국을 도운 국민을 찾아 처형하기 시작했다. 그 처형 대상엔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활동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도 있었는데 그들과 그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통역, 강사, 의사, 간호사, IT 전문가 등 전문인력과 그 가족들 총 391명이었다. 현지에 파견된 우리나라 직원들이 모두 철수해 귀국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한국으로 탈출하고자 구원을 요청해 왔고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우리 직원들은 반드시 구하러 오겠다고 약속했고, 마침내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에 따라 공중급유 수송기 1대와 군 수송기 2대를 아프간으로 급파해 생지옥 같았던 카불공항에서 391명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

위태롭게 남겨진 아프간 동료들을 구출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이 작전을 진두지휘한 김일웅 참사관은 “우리나라도 한때는 가슴 아픈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의 도움과 희생으로 아픔을 딛고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를 도왔던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웅 대사가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공화국 대통령과 함께 사열하는 모습. 수교 후 첫 번째 임명된 대사로 국민의 예우로 영접했다고 한다.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공화국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김일웅대사가 서명하고 있다.

익원공 제617주기 불천위 제향 봉행



▲만수당(유형문화유산 제310호)

2024년 9월 1일(일, 음7.29) 13시, 전북 고창군 공음면 갑촌길 20, 도암서원 내 부조묘(不祧廟)에서 익원공(翼元公 諱 士衡) 제617주기 불천위 제향이 영수(榮秀) 익원공파총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9월 초하루임에도 한낮은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에 세거하는 부령공 후손들의 열의로 묘당 앞에는 제향에 지장이 없도록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제수와 음복 등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만반의 제향 준비를 해주었다. 집례를 맡은 태철(泰喆) 의전부장의 흘기(笏記)에 맞춰 초헌관에는 효소공계 지묵(智默) 고문이, 아헌관에는 전침공 재택(在澤) 회장이, 종헌관에는 부령공계 신회(信會) 이사가 헌작을 하였다. 제례 봉행 후 영수(榮秀) 익원공종회 파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제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준 부령공 경회(京會) 회장 및 임원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경향 각지에서 불천위 제향에 참례하여 주신 종친들께도 감사와 건강을 당부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마치고 다과를 곁들인 음복으로 도암서원(道巖書院)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2024년 617주기 불천위제향 분정					
分定	名	備考	分定	名	備考
初獻官	지묵(智默)	동추공전임회장-孝	奉 爐	경현(炘炫)	고창-部
亞獻官	재택(在澤)	전침공 회장-典	奉 香	태연(泰連)	인천-孝
終獻官	신회(信會)	서울 이사-部	司 樽	권회(權會)	당진-文
大 祝	형식(亨植)	이목-文	奠 爵	기홍(起弘)	고창-部
執 禮	태철(泰喆)	수원-文	時 到	수인(洙寅)	고창-部
贊 引	태신(泰信)	서울-牧	直 日	성회(聖會)	부여-孝
陳 設	일수(一洙)	고창-部			

귀경길에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310호로 지정된 만수당(晩睡堂)에 들러 현 소유 관리자인 연정 김경식(淵亭 金璟植) 박사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연정 선생의 증조부인 회천 김재중(晦泉 金在鍾) 선생이 건립한 회천정사(晦泉精舍)와 후면의 연지(蓮池)옆에 위치한 보정이 직접 수정(水亭)이라 쓰고 편액한 정자를 둘러보았다.

- 翼 의전부장 김태철 -

2024년 갑진년 익원공 세일사 봉행



2024년 11월 6일(음 10월 6일) 수요일 오전11시, 익원공파총회(회장 김영수)는 140여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청계산 묘역에서 익원공(휘 士衡) 파조 할아버님과 배위이신 마한

국대부인 죽산박씨 할머니, 그리고 밀직사사공(휘 陞)과 정부인 광산 김씨 할머니의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맑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진 화창한 가을의 온기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익원공과 그의 아드님 밀직사사공 할아버님의 세일사를 마치고, 영수(榮秀) 파총회장은 참석한 종원들께 익원공 할아버님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안동김문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이어진 인사로 석한(錫漢) 대총회장은 안동김문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천 물계서원의 진행 현황과 익원공 할아버님께서 주축이 되어 1402년에 제작한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포함한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종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식사를 마치고 파총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선물을 들고 세일사의 일정을 마쳤으며, 분방은 다음과 같다.

- 익원공파총회 사무국장 태연 -

祭位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翼元公 諱 士衡		榮和 牧 대구		寅會 牧 동추공회장		允會 文 문정공회장	
密直司事公 諱 陞		在澤 典 전침공회장		文會 孝 신창공회장		在燮 文 지추공국장	
집례	泰喆	문 수원	봉로	暢桓	효 남양		
대축	亨植	문 이목	봉작	在正	문 수원		
찬인	泰信	목 서울	전작	恩會	문 수원		
진설	容浩	문 모현	시도	泰連	효 부여		
사준	豊會	효 남양	직일	在永	문 수원		

영의정 문경공(휘 수동) 세일사 봉행



2024년 11월 17일(일요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동구 송정동 장등산 문경공 묘소에서 문경공종회 김종묵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례를 맡은 정묵 대종회 고문의 홀기(笏記)에 맞춰 대종회 석한(錫漢) 회장의 초헌례, 대종회 태영(泰榮) 사무총장의 아헌례, 재천(복술) 후손이 종헌례를 올리면서 문경공 할아버님의 512주기 세일사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안동김씨대종회에서 석한 회장, 태영 사무총장, 태신 이사, 수길 대구종친회 회장과 김효열 문온공파 대구종친회장, 제학공파의 김윤천 원로 종친 등이 참례하여 더욱 뜻깊은 세일사를 봉행하게 되었다. 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석한	대종회장	봉 향	재준	문경공 후손
아헌관	태영	대종회 사무총장	봉 로	태신	대종회 이사
종헌관	재천	문경공 후손	봉 작	성묵	문경공 후손
집례	정묵	대종회 고문	전 작	진섭	문정공 후손
대축	영화	대종회 부회장	직 일	종묵	문경공 종회장

세일사 때 마다 제주를 보내주시는 신평 양조장 용세 고문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대종회장님과 사무총장께서는 우리 문경공 할아버님 사당과 재실을 둘러보며 정조 임금의 예관을 보내어 양천현 문경공 묘소에 제사를 지낸 치제문 이야기 등 전해주시신 깊은 말씀에 우리 모두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늦은 시간 먼 길 조심하여 가시길 바라는 인사를 나누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수동(金壽童, 1457년~ 1512년)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미수(眉叟), 호는 만보당(晩保堂),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의 후손으로, 조부는 동지중추부사 김종숙(金宗淑)이고,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김적(金積)이며, 어머니는 동부승지 안질(安質)의 따님이다.

1474년(성종 5) 생원시에 합격했고, 147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장령(掌令)을 역임했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전한(典翰), 직제학(直提學), 부제학(副提學)을 역임하였다.

1497년(연산군 3) 동부승지, 이듬해 좌승지를 거쳐, 외직으로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예조참판이 되었다. 성절사로 명나라에 가서 「성학심법(聖學心法)」4권을 구해왔다. 그 뒤 경상도관찰사·이조참판·경기관찰사·형조판서 겸 지춘추관사, 제학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쳐, 1504년 47세에 이조판서에 올랐다. 지의금부사)와 도총부도총관(都摠府都摠管)을 추가로 겸했으며, 1505년(연산군 11) 좌찬성(左贊成)에 제수되고 그대로 이조판서를 계속 겸했다.

이 해 갑자사화 때 폐비 윤씨의 회릉추숭(懷陵追崇)을 주장, 연산군의 신임을 받아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1506년 어머니 상을 당해 사직하고 물러났으나, 왕명으로 단상(短喪)으로 마치고 3개월 만에 우의정에 부임하였다. 이 때 중종반정에 참여해 좌의정에 오르고 정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영의정(領議政)으로 승진하고 영경연흥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를 겸했다.

품성이 단정했으며, 청탁을 모두 거절하고 검약한 생활을 즐겼다. 연산군 때에는 많은 문신들의 화를 면하게 하였다. 1512년(중종 7) 향년 56세로 졸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정묵 대종회 고문 -

평택 자산공 종중 동추공(휘彦禎) 이하 4위 세일사 봉행



2024년 11월 03일(음력 10.5) 일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 선영에서 군사공파 자산공종중 완회(完會) 회장을 비롯

한 50여 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동추공(휘彦禎), 군자감정공(휘彦珍), 참의공(휘繼先), 첨추공(휘格), 동추공(휘鳳儀) 선조님에 대한 세일사를 차례로 봉행하였다. 분정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태영 • 아헌관: 종용 • 종헌관: 인희
- 집례: 태봉 • 대축: 경회 • 좌집사: 종회
- 우집사: 정묵 • 봉작: 태길, 기범
- 산신제: 승용, 각회

〈참사자〉 도기록 순서
경회, 각회, 범회, 남회, 종회, 구회, 태영, 태동, 형식(용회), 종례, 종용, 장용, 인희, 민수, 완회, 태길, 승용, 기범, 태근, 경묵, 두회, 대현, 민학, 민희, 보회, 태한, 재철, 정묵, 성묵, 윤일, 상회, 태혁, 태수, 태봉, 태웅, 원석, 태성, 태환 그리고 며느님들 다수가 참석하여 수고해 주셨다.

- 자산공종중 총무 태봉 -

전침공(휘 宗潤) · 감찰공(휘 琛) · 청안현감공(휘 善孫) · 좌랑공(휘 淡) 4위 세일사 봉행



2024년 10월 19일(음력 9.17) 토요일 오전 11시,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산106번지 선영에서 석한 대종회장을 비롯한 동회씨 아

들 2명, 익원공파 영수 회장, 종빈, 대경공 영희 회장, 대구 영화 대
중회 부회장 내외분, 정묵 대종회 고문, 철희 내외분, 봉한, 일희 내
외분, 덕적도 태현, 인숙, 부여 성희 대종회 부회장, 문영공 태철 총
무이사, 윤희, 대회, 청주 태진 종친회장 내외분과 논산 재택 대종
회 부회장 내외분, 충식 총무 내외분 등 종친 3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전침공(휘 宗潤) · 청안현감공(휘 善孫) · 좌랑공(휘 淡) 4위분
의 세일제를 엄숙히 봉행 하였다. 분정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영희, 아헌관 정묵, 종헌관 윤희
- 집례 태철, 축관 영화, 좌집사 대회, 우집사 태현, 봉사 종빈, 찬희, 일희
- 산신제 태진, 대회

- 전침공종친회 총무 충식 -

장령공(휘 湜) 세일사 봉행



2024년 11월 1일(음력 10.1) 금요일 오전 10시, 충남 공주시 탄천
면 향골길 62, 생양병사(生陽丙舍) 재실에서 효소공종회 윤묵 회장
을 비롯한 장령공종회 태홍 회장, 태균 총무, 성희 대종회 부회장,
익원공파 태연 사무국장, 논산종친회 재승 회장, 동식, 학희, 경환,
돈희, 전침공 재택 대종회 부회장 등 5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령공 할아버님을 비롯하여 여러 조상님들 세일제를 엄숙
히 봉향하였다. 이날 분정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학희 · 아헌관: 재택 · 종헌관: 평희
- 집례: 성희 · 축관: 태홍 · 좌집사: 동식 · 우집사: 흥식,
- 찬인: 왕희 · 봉사: 창환
- 산신제: 김동식, 김경환

- 장령공종친회 총무 태균 -

대경공(휘 瑛) 세일사 봉행



2024년 10월 20일 (음력 9.18) 일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 산 215번지 대경공 재실에서 대종회 김석한 회장을 비롯한 대
경공 영희 회장 내외분, 종석 총무, 익원공파 영수 회장, 종빈, 재훈
내외분, 기회, 재만, 재두, 명춘, 태현, 동희, 용희, 소희, 태원, 명
희, 동희 그리고 며느님 등 50여명과 전침공 재택 대종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일사를 엄숙히 봉향하였다. 이날 분정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영희, 아헌관 석한, 종헌관 영수
- 집례 재만, 찬인 명훈, 축관 재훈, 좌집사 종빈, 집사 태현

- 대경공종친회 총무 종석 -

사과공(휘 潔) · 충민공(휘 欽) 이하 세일사 봉행



2024년 10월 26일 (음력 9.24) 토요일 오전 11시, 충남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339번지 충민공
(忠愍公) 재실에서 김수희 부부, 김상만 부부, 김종희씨 부인, 김인희 총무, 김태인 김재택 부부
가 참석한 가운데 충민공(忠愍公, 휘 欽) 세일사를 엄숙히 봉향 하였다 분정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상만 · 아헌관: 수희 · 종헌관: 인희 · 집례: 태인 · 축관: 재택
- 산신제: 인희, 상만, 수희

- 충민공종친회 총무 태인 -

제2회 지도의 날 '백두산 지도와 문화' 강연 및 전시회 개최



'지도포럼'은 9월3일(화) 14:0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협회, 대한지리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한국지도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제2회 '지도의 날' 기념식과 함께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백두산 지도와 문화'를 주제로 사진 전시회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회장 김영환), 안동김씨역사연구회(회장 김윤만), 안렴사공파 김형남 회장, 익원공파 김영수 회장 과 안사연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1부 개막식은 서혜란 전 국립도서관장이 진행을 맡고, 개회식은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의 사회로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의 환영사와 김태영 사무총장이 대독한 김석한 대총회장 축사에 이어 백두산 고지도 전시회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였다.

2부 학술강연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학예관이 진행을 맡아 양보경 (명예교수 전성신여대총장)의 '한국고지도 속 백두산', 김

영환 (강리도편찬위원장)의 '백두산과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문상명(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옛 지도를 통해 본 선비들의 백두산 등정', 이계형 (국민대 교수)의 '백두산 첫 동네 내두촌 조선족의 삶'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환 위원장은 백두산이라는 지명이 세계최초로 지도에 나타난 것이 강리도임을 강조하고 또한 '조선'이라는 국명, '일본'이라는 지명도 세계최초로 지도에 나타난 것이 강리도임을 밝혔고 또한 강리도에 나타난 백두산 주변의 4군6진에 대해 지도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문상명 동북아재단 연구위원은 1885년 김우식의 '백두산정계비 탐방록 및 감계수행일기'를 소개하며 조선 역사 속의 백두산을 설명했다. 이계형 교수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조선족 연구소가 없다"라며 "두만강과 압록강 쪽에도 몇 개의 (조선족) 마을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철저히 기록해 뒤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중공업 발전의 주역, 우정 김재관 박사 국립현충원에 영면하다.



10월 31일 한국과학기술의 산파 역할을 한 우정(宇靜) 김재관(金在官, 1933~2017) 박사의 유해가 고향 경기 화성에서 대전 국립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이장됐다.

안장식에는 유족 대표로 김 박사의 아들인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대표, 김재남 안동김씨대종회 고문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 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김 박사와 함께 연구를 했던 과학계 원로 등 4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과 함께 해외유치과학자 1호로 국가를 위한 연구에 힘쓴 정낙삼 표준연 명예연구원은 "고인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국가 표준 체계를 확립 해나가며 남보다 앞서 내다보는 혜안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끌었다"며 "그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경험이었고 행운이었다. 후배 과학자들이 그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나 갔으면 한다"며 추모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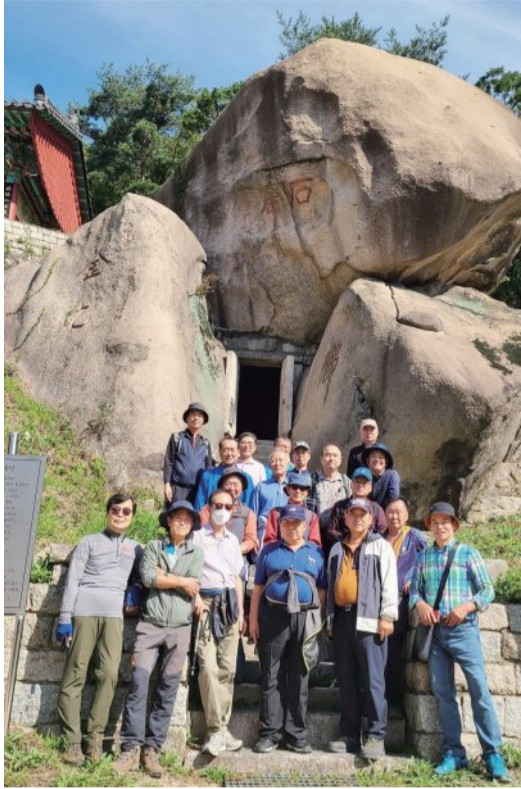
을 경유했다. 정문을 통과해 '연못 정원'에 도착하자 이호성 원장을 비롯한 역대 표준연 원장들이 맞이하여 김재관 박사의 호를 딴 '우정(宇靜)'이라는 이름의 정자(亭子)를 조성, 현판식을 열었다. 표준연은 내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고 김재관 박사의 부조상(浮彫像)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재관 박사는 1933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뮌헨공대에서 기계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에는 서독 철강회사인 데마그에서 근무하며 독일의 철강산업 발전상을 보고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방안'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1964년 당시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훗날 포항종합제철소 설립 기반이 되었다. 이후 유치과학자 중 유일한 독일 출신 과학자로 한국으로 돌아와 포항제철·포니자동차·국가표준제도 설립을 지휘하여 초대와 2대 원장을 맡았다.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시간 표준인 '표준시'를 도입하고, 시간과 질량, 길이 등의 표준을 확립해 산업발전의 기틀을 놓았다.

고 김재관 박사 기념, 호를 딴 정자(亭子) '우정' 조성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운구 차량은 국립 현충원으로 이동하면서 생전에 초대·2대 원장을 역임한 대전 유성구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2022년 2월 23일자 안동김씨대종회보 제154호 기사, 13~14면 김재관 박사 참조

의정부 사패산(석굴암 · 회룡사)와 청계천(소망의 벽) 탐방



안동김씨역사연구회(安史研)에서는 2024년 10월 09일 의정부 사패산 자락의 석굴암, 회룡사와 청계천 소망의 벽을 탐방하는 가을 답사모임을 진행했다.

안사연 김윤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1호선 전철 회룡역 ③번 출구를 출발하여 의정부 소풍길(명상의길)을 따라 온다.

조선초 왕자의 난으로 함흥에 가 있던 태조 이성계가 돌아와 태종 이방

원을 다시 만난 곳이라는 상봉지 표지석을 지나게 되고, 의정부 지정보호수로 450여년 된 회화나무 한그루가 멋진 자태를 뽐내며 우리 탐방객을 맞이한다.

경상도 안동지방 양반가에는 이 회화나무를 한그루씩 심는다고 하는데, 이 나무는 유생이 과거에 급제하는데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선비나무로도 전해진다.

회룡탐방지원센터를 지나면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으로 석굴암~회룡사~사패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목이다. 회룡사 다리를 지나는 계곡에는 많은 암석이 깔려 있고 그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흐른다. 작은 다리를 건너면 우측으로 석굴암, 좌측으로는 회룡사로 가는 길림길이다.

■ 석굴암 백범 김구 선생 암각문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는 산자락에는 이제 채색되어가는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하다. 500여m를 올라 불이문 앞 입구에 도착했다. 의정부시 호원동 산89에 위치한 백범 김구선생 필적 암각문이 의정부시 향

토유적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회룡사 경내의 석굴암은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이 상해로 망명하기 전에 한때 피신했던 곳으로, 해방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 되어 귀국한 선생은 이곳에 자주 들러 자연을 즐기며 지난일을 회상했다고 한다.

석굴암 입구 3개의 거대한 자연석 위에 각기 새긴 「석굴암(石窟庵)」 「불(佛)」 「무자 중추 유차(戊子仲秋遊此) 백범(白凡) 김구(金九)」란 명문은, 당시 언론인 남상도(南相燾) 외 7인이 선생의 친필을 받아 1949년 3월부터 약3개월간에 걸쳐 각석을 마친후, 1949년 6월 26일 오후3시에 백범 선생을 모시고 명문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그날 백범 선생이 흉탄에 돌아가시자 완공식에 선생이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의정부시에서는 선생의 피문은 조끼 조각을 시신 삼아 영결식을 거행하고, 이곳 석굴암에 안치했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석굴암

에 선생의 위패를 모셨고, 이곳을 ‘백범사(白凡祠)’라 하고, 백범사 주관위원회에서 봄·가을로 제향하였다고 한다. ‘백범사’는 노산(魯山) 이은상(李殷相)이 이름 짓고 백강(白江) 조경한(趙擎韓)이 현판을 썼다. 이후에 백범 김구선생의 아드님이신 김신 장군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이곳을 다녀가기도 했지만, 현재 백범사는 흔적이 없고 비구스님의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다

■ 예순 비구니가 중창한 전통사찰 회룡사



회룡사(回龍寺)는 통일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말사이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 사찰이기도 하다.

조선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오층석탑」과 「석조」가 있고, 19세기 탕화의 특징을 반영한 「회룡사 신중도」가 보관되어 있다.

광해군~인조때 인조반정 1등공신인 이귀(李貴)의 딸(李女順)은 김자점의 형 김자겸(金自兼)에게 출가하였는데 일찍 과부가 되고, 불문에 입문하여 예순(禮順)이라는 비구니가 되었다. 사패산 회룡사 주지가 되어 위기 때마다 아버지를 도와 인조반정을 성공시켰다. 그 뒤 김자점의 손자 세룡(世龍)이 인조의 고명딸 효명옹주에게 장가들어 부마가 되었다.

三日浦丹石(삼일포 단석) 三日前丹石(삼일포 단석) 三日前丹石(삼일포 단석) 三日前丹石(삼일포 단석) 三日前丹石(삼일포 단석) 三日前丹石(삼일포 단석)	福州(북주) 北州(북주) 北州(북주) 北州(북주) 北州(북주) 北州(북주)	映湖樓(영호루) 映湖樓(영호루) 映湖樓(영호루) 映湖樓(영호루) 映湖樓(영호루) 映湖樓(영호루)	龜岩(구암) 龜岩(구암) 龜岩(구암) 龜岩(구암) 龜岩(구암) 龜岩(구암)	秋興亭(추흥정) 秋興亭(추흥정) 秋興亭(추흥정) 秋興亭(추흥정) 秋興亭(추흥정) 秋興亭(추흥정)
休暇(휴가) 休暇(휴가) 休暇(휴가) 休暇(휴가) 休暇(휴가) 休暇(휴가)	足後(족후) 足後(족후) 足後(족후) 足後(족후) 足後(족후) 足後(족후)	田圃(전포) 田圃(전포) 田圃(전포) 田圃(전포) 田圃(전포) 田圃(전포)	東湖(동호) 東湖(동호) 東湖(동호) 東湖(동호) 東湖(동호) 東湖(동호)	養老(양로) 養老(양로) 養老(양로) 養老(양로) 養老(양로) 養老(양로)
別根(이별의 근) 別根(이별의 근) 別根(이별의 근) 別根(이별의 근) 別根(이별의 근) 別根(이별의 근)	次月中梅節 次月中梅節 次月中梅節 次月中梅節 次月中梅節 次月中梅節	忠公(충공) 忠公(충공) 忠公(충공) 忠公(충공) 忠公(충공) 忠公(충공)	龍湖(룡호) 龍湖(룡호) 龍湖(룡호) 龍湖(룡호) 龍湖(룡호) 龍湖(룡호)	나의 소원 나의 소원 나의 소원 나의 소원 나의 소원 나의 소원

또한 회룡사에는 김석한 대중회장께서 삼석각을 건립하여 시주하고 약사전의 장명등 대법당의 탕화 등 곳곳에 불사한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성업 충무스님이 주신 모시떡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돌아왔다.

점심 식사를 위해 광장시장 먹자골목으로 나왔으나 공휴일이라 국내외 관광객들로 혼잡하여 녹두전을 구입하여 우리 선조님들의 시문이 부착되어 있는 청계천 ‘소망의 벽’을 찾아 감상하고, 주변 식당에서 늦은 식사와 담소로 긴 무더위가 꺾인 뒤의 가을 행사로 안사연 답사모임을 마무리했다.

- 안동김씨역사연구회 총무 김형식 -

안사연(安史研) 창립 23주년 기념 행사



안사연(안동김씨역사연구회)에서는 2024년 11월 11일(월요일) 창립 2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1부 문화답사와 2부 창립 기념 행사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문화답사는 14:00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 앞에 15명이 모여 신묵(臣默) 안사연 학술이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먼저 동관왕묘를 둘러보고 도보로 청계천 영도교(永渡橋)를 거쳐 단풍으로 물든 송인 근린공원 동망봉(묘각사)과 청룡사를 탐방하고 소진홍(蘇眞弘) 주지 스님을 만나 청룡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 들을 들었다.

2부에서 합류한 7명의 회원과 함께 22명이 종로3가 이대감집에서 안사연 창립 23주년 기념 축하 행사를 자축했다.

안사연 윤만 회장의 개회사와 태영 사무총장의 축하 인사, 그리고 해외에 출타 중인 영환 고문의 축사를 회장이 대독하며 분위기를 북돋웠다. 특갈비살에 음료와 주류를 곁들여가며 23주년 축하와 환담을 나누며 함께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 문화탐방 코스

동묘(서울 東廟, 東關王廟)-영도교(永渡橋)-동망봉(東望峰)-정업원 터(淨業院 터)-청룡사(靑龍寺)

대전 중구 제15회 효문화뿌리축제 개최



안동김씨 충남지역(논산·부여) 종친들이 지난 10월 12일 오전10시 뿌리공원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15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에 참석하여

총렬공 김방경 중시조, 충무공 김시민 장군, 충무공 김응하 장군, 백범 김구선생의 깃발을 들고 퍼레이드와 함께 안동김씨 조형물 앞에서 참배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효문화뿌리축제는 그동안의 관 주도 축제에서 벗어나 뿌리공원과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마을 등 중구 관내 효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주민주도 축제로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대전 대표축제의 면모를 이어갔다.

안동김씨가 118번째로 입장한 이번 행사에는 논산에서 익원공과 김재택 대총회부회장 부부(논산)와 김재승 논산중친회장·김인회·김기식 중친이, 부여에서는 익원공과 김성희 대총회부회장을 비롯하여 안렴사공과 김태균 중친 부인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김재택 대총회부회장-

안동 영호루에 선조님 시판(詩板)을 달자!!!

상락 총렬공(휘 방경)을 비롯한 우리 선조님들과 영호루의 역사

안동의 영호루는 경남 밀양의 영남루(嶺南樓), 진주의 축석루(矗石樓), 전북 남원의 광한루(廣寒樓)와 함께 한강 이남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불려 왔다. 창건에 관한 문헌이 없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건립되었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1281년 도원수 김방경(金方慶)이 일본정벌 후 고향 안동에 돌아와 영호루에서 지은 칠언절구 한편과 그로부터 10년 뒤인 1291년에 아들 김흔(金忻)이 지은 차운시 1편이 걸려있어 창건 연대가 고려 중기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현손 척약재 김구용(金九容)이 1371년 죽주에 유배되어 한거하던 시기에 이곳 영호루에 올라 '고조부 상락공의 시에 차운하다'라는 절구 한편과 그 후 1830년대 후손 삼소재 김종락(金宗洛)이 다시 영호루에서 '선조 총렬공 판상시운을 따르다'라는 차운시 한편을

남겼으나 이 두 편의 시는 영호루에 게판되지 않고 있다.

영호루는 여러 차례 홍수를 겪고 이때 유실되었다가 회수한 현역들과 새로 복원한 현역들을 게판하고 있지만 척약재 김구용, 삼소재 김종락 선조님의 차운시 두 편도 영호루에 게판 되기를 후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원운 山水無非舊眼靑 樓臺亦是少年情 可憐故國遺風在 收拾絃歌慰我行 김방경
차운 十載前游入夢靑 重來物色慰人情 壁閒奉繼嚴君筆 堪咤愚兒萬戶行 김흔
차운 先祖題詩字字靑 重來此日更含情 江山似有留連色 仍占春風未肯行 김구용
차운 百里湖山八望靑 春風花樹惱人情 東征壯士今安在 吾祖當年海上行 김종락